

KIA '유종의 미' 거둔다



SK 경기결과 상관없이 자력 우승위해 비지땀 선수들간 "가을잔치 꼭 뛰겠다" 소리없는 경쟁

마지막 133경기가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훈련을 갖고 24일 히어로즈와의 군산 홈경기를 대비했다. 훈련전 선수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1위 확정시기였다. 이날 삼성과 대결을 벌일 SK가 패배를 한다면 KIA는 자동으로 정규리그 우승자가 될 수 있는 상황. SK가 연승을 이어간다면 KIA는 24일 군산경기를 통해 1위 싸움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1위를 확정짓고 싶은 선수들의 심정이었지만 여기에도 고민은 있었다. 12년만의 페넌트레이스 우승인만큼 끝

까지 승인을 보내준 팬들과 1위 등극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지만, SK의 경기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우승이 확정되면 각자의 방 TV앞에서 조촐하게 자축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홈 관중들 앞에서 1위를 확정짓고 세리모니를 하자니 혹시 모를 패배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게 선수들의 또 다른 심정. 결국 결론은 '빨리 1위를 결정짓고 편하게 남은 2경기를 하자'로 났다. 화려한 축하쇼보다는 확실한 1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조범현 감독의 입장도 선수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조 감독은 자력으로 1위를 결정지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군산전 선

발투수를 로페즈와 구토슨으로 찍어두었다. 하지만 올 시즌 두 선수가 팀내 투수들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만큼 휴식을 주고 싶은게 조 감독의 마음이었다. 마음 속으로는 1위를 새겨두었지만 선수들은 이날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말은 아졌다. 아직 끝난 게 아닌만큼 '천기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우승을 향한 간절함의 뜻이었다. 20일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최경환이 돌린 피자로 간식을 행진 선수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수비훈련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따끔한 충고를 듣는 것은 물론 발칙으로 복근운동도 해야하는 등 경기장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두 경기 순위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겠



KIA 타이거즈 투수들이 2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수비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KIA 선수단은 히어로즈와의 남은 일정에 대비해 전체훈련을 실시했다.

다는 선수들의 각오도 각오지만 포스트시즌을 향한 내부 경쟁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9월 엔트리가 확장되면서 현재 31명의 선수가 1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포

스트 시즌에서는 다시 엔트리가 26명으로 줄어든다. 정규리그 1위의 감격을 누리고도 가을잔치 무대를 밟지 못하는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KIA의 2009시즌은 25일 무등경기장에서 비로소 성대한 막을 내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우승 축포는 아직...

SK, 삼성꺾고 16연승 역대 최다 팀 연승 타이

SK의 연승 행진으로 KIA 우승의 날이 늦춰졌다. 2위 SK 와이번스가 22일 문학구장에서 벌어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1회 4점을 뽑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6-1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SK는 16연승을 채우며 삼성

이 1986년 세운 역대 프로야구 최다 팀 연승 기록과 타이틀 기록하게 됐다. 매직넘버를 1로 줄여놓고 문학경기를 지켜봤던 KIA는 SK의 승리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짓지는 못했다. KIA는 23일 SK의 경기를 다시 한 번 지켜보면서 우승의 순간

을 기다리게 됐다. 만약 23일 SK가 17연승으로 프로야구 역대 최다 연승기록을 세우게 된다면, 24일 KIA와 SK의 입장이 뒤바뀔다. 24일 경기가 없는 SK는 군산에서 열리는 KIA와 히어로즈와의 대결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게 된다. 24일 KIA가 히어로즈를 제압한다면 정규리그 우승의 영예는 KIA가 안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화 송진우 오늘 은퇴식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22일 송진우(43) 은퇴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송진우는 23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홈 경기에 선발투수로 등판, 10이닝 범위에서 LG 타자들을 상대한다. 한화는 '송진우 은퇴 경기'라는 글씨가 박힌 특별 제작된 공을 사용한다. 클리닝 타임 때 송진우는 오픈카를 타고 구장에 입장,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989년 빙그레이글스(한화 전신)에 입단해 21년간 입었던 유니폼을 이경재 한화 대표이사에게 반납한다. /연합뉴스



<양용운> <나상욱> <타이거 우즈>

1천만弗의 전쟁 최후의 승자는?

페덱스컵 PGA 투어 챔피언십 내일 개막

'타이거의 굳히기나, 디 아더스(The Others)의 역전 드라마' 페덱스컵을 놓고 벌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투어챔피언십이 24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장(파70·7천154야드)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지난 3개 플레이오프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뒤 마지막 대회까지 살아남은 선수는 30명. 지난 해에는 비제이 싱(피지)이 플레이오프 첫번째 대회와 두번째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해 투어 챔피언십이 시작되기도 전에 페덱스컵 우승을 사실상 결정지었다. 이 때문에 PGA 투어는 마지막 대회 투어챔피언십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출전한 30명의 점수를 재조정했다. 3개 대회가 끝난 뒤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순위간 점수차를 줄여 놓았다. ▲양용운·나상욱, 마지막 대회의 영광을 = 페덱스컵 포인트 300점으로 21위에 올라있는 양용운(37·테일러메이드)이나 340점으로 18위에 올라있는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이 페덱스컵을 차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투어챔피언십 우승컵을 쟁기더라도 상위 랭커들이 형편없는 성적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양용운이 투어챔피언십을 우승하더라도 2천800점, 나상욱의 경우 2천840점에 불과해 상위권 선수들이 중하위권 밀로 떨어지기를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페덱스컵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투

어챔피언십 우승컵도 값진 의미가 있다. 양용운은 아시아 남자 최초로 메이저 대회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BMW챔피언십이 끝난 뒤 1주를 쉬면서 체력을 비축했다. 양용운이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대회를 우승한다면 한국인로서는 처음으로 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리는 선수가 된다. 나상욱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나상욱은 투어챔피언십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BMW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에 올라 양용운과 마찬가지로 생애 처음 최종 30명이 겨루는 마지막 대회까지 왔다. ▲우즈와 그의 추격자들 = 올 시즌을 메이저대회 우승없이 보낸 우즈는 페덱스컵 우승으로 명예회복을 비르고 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올해 초까지 재활 치료를 받았던 우즈는 이미 6승이나 수확했지만 피날레를 장식할 우승컵이 필요하다. 우즈는 2007년 이스트레이크에서 열린 투어챔피언십에도 우승했고 2005년과 2004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하는 등 이 골프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페덱스컵 우승 후보 1순위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PGA챔피언십에서 우즈가 양용운에게 달미를 잡혔듯이 2~5위에 올라있는 선수들을 보면 방심할 수만은 없다. 2위 스트리커를 비롯해 3위 짐 퓨릭, 4위, 잭 존슨, 5위 히스 슬로컴(이상 미국)까지 누구라도 투어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면 페덱스컵을 차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



특명! 태클을 피하라

22일(한국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NFL 풋볼게임 마이애미 돌핀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 돌핀스의 앤소니 파사노(왼쪽)가 콜츠의 팀 제명의 태클을 피해 상대 진영으로 몸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